“남곡당 윤명 대선사 유지 잇자”

고창 선운사, 초대주지 남곡 스님 35주기 추모재

조계종 24교구 선운사(주지 경우)는 7월 30일 선운사 초대주지를 역임한 남곡당 윤명대선사 35주기 추모재와 불기 2562년 무술년 하안거 포살법회를 봉행했다. 〈사진〉



선운사 지장보궁에서 봉행된 남곡당 윤명대선사 추모재에는 남곡 스님의 문손 재곤 · 재석 · 재정 스님을 비롯한 선운사 원로스님들과 주지 경우 스님, 선운초기불교대학원 강주 재연 스님, 대학원장 환성 스님, 한주 재덕 스님과 법현 스님 등 선운사 사부대중 150여 명이 참석해 남곡 스님 가르침을 되새겼다.

남곡문도를 대표한 재곤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참석한 대중스님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수행과 불사에 남다른 원력을 지녔던 은사스님의 유지와 가르침을 받들어 더욱 수행정진에 매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남곡당 윤명 스님은 1931년 장성 백양사에서 영호 스님은 은사로 출가해 1934년 만암 스님으로부터 구족계를 수지했다. 1963년 불교정화운동으로 격렬했던 비구대처 양설을 화합하는데 주력했으며 총무원 재무부장, 교무부장, 조계사 주지 등을 역임했다. 1966년 초대 24교구 선운사 주지 소임을 맡아 선운사 천왕문과 대웅보전, 도솔암을 중창하고, 1983년 세수 73세, 법랍 54년으로 선운사에서 입적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전라북도 발전, 스님들과 함께”

태고종 전북종무원, 송하진 전북지사 간담회

태고종 전북종무원 스님들과 송하진 전북도지사 간 간담회가 열렸다.

송하진 전북지사는 7월 27일 전북도청 영상관에서 태고종 전북종무원 각 사암주지스님, 영산작법보존회 스님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종무원장 진성 스님을 비롯해 각 국장스님들과 전북교구 종회의장 법전 스님을 비롯한 종회의원스님, 영산작법보존회장 혜정 스님과 보존회 스님들, 포교원장 승천 스님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도청 측에서는 송하진 지사를 비롯해 윤동욱 문화체육관광국장 등 종무 · 문화재 담당 관계자, 문화재 전문위원 회일 스님이 참석했다.

송 지사는 “지난 3월 새만금 영산문화 축제에서 보여준 스님들의 원력에 놀랐다. 그로 인한 세계잼버리 대회 개최 준비가 잘 진행되고 있다”며 “도지사로서 효율적인 정책 수립 등을 논의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진성 스님은 “새만금 영산문화 축제에서 보여주었듯이 태고종 스님들은 나라와 전북도민을 위한 역할을 늘 고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간담회에서 스님들은 태고종 전통사찰과 문화재 사찰에 대한 운영 관리, 비문화재와 비전통사찰 전수조사, 영산작법 전통공연 개최 등의 도청 협조와 지원을 요청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삼광사, 불국토 ‘연꽃 세상’ 초대

9월 8일까지 연꽃 문화제

부산 삼광사가 불교의 깨달음을 상징하는 연꽃으로 장엄된 불국토를 선보인다. 천태종 삼광사(주지 세운)는 오는 9월 8일까지 연꽃문화제를 개최한다. 전시기간 동안 경내 곳곳에 핀 연꽃으로 장엄된 도량을 쉼터로 시민에게 개방한다. 주제는 ‘배려, 존중, 나눔을 피어나는 연꽃’이다.

아울러 삼광사는 연꽃문화제 기간 중 9월 2일 오전 11시 다문화인들을 위한 ‘제6회 세계음식어울림한마당’을 개최한다.

이 행사에는 베트남, 인도네시아, 몽골, 우즈베키스탄, 필리핀 등 이주여성 및 노동자를 비롯해 시민 3000여 명이 동참할 예정이다. 참가자들은 각 나라의 전통 음식과 문화를 소개하고 전통공연 및 특별공연도 선보인다. 특히 다문화인을 위한 한국전통약선요리 전시체험을 선보여 음식을 통한 문화 교류도 시도한다. (051)808-7111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원폭 희생자 아픔, 우리가 보듬어야”

불교계 합천서 제73주기 원폭희생 영령 추모제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1945년 8월 6일과 9일,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에 조선인 피해자 7만여 명이 희생됐다. 소외되고 잊힌 조선인 원폭 피해자와 후손들을 위한 지원과 실태 조사를 촉구하며 희생영령을 기리는 추모제가 봉행됐다.

사단법인 위드아시아(이사장 지원)는 8월 6일 합천 원폭피해자복지회관 위령각에서 ‘해원을 넘어 평화의 언덕으로’라는 주제로 제37주기 원폭희생 영령 추모제를 개최했다. 추모제는 사단법인 한국원폭피해자협회와 합천원폭피해자복지회관이 공동 주최했으며, 한국원폭2세 환우회가 주관했다.

추모제는 개회사로 시작해 추모묵념 및 추도사, 유족대표 인사말로 진행됐다. 내빈들은 헌화하며 희생된 영령을 추모했다.

추모제에는 사단법인 위드아시아 이사장 지원 스님을 비롯해 문준희 합천군수, 강석진 국회의원 등 사부대중 500여 명이 동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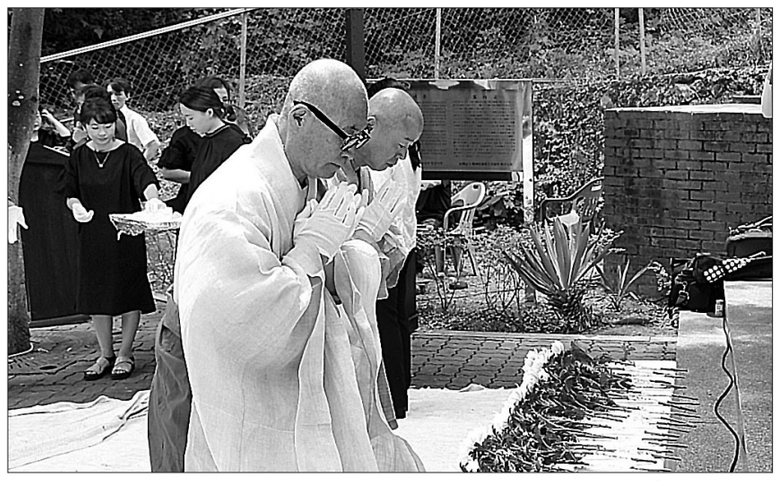
지원 스님은 “73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까지도 책임지고 사죄하는 가해국 권력자는 누구도 없는 가운데 추모비만 쓸쓸하게 이국땅에 서있다”며 “비핵화는 평화의 길이며 20대 국회에서는 원폭피해자지원특별법이 반드시 개정돼 후손의 삶을 보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가족을 대표해 심진태 한국원폭피해자협회 합천지부장은 “현재 원폭피해자지원특별법은 반쪽짜리에 불과하다”며 “원폭피해 2세 환우 등 후손들이 피해자 범위에 포함되도록 특별법 개정이

조선인 원폭 피해자 7만명
생존자 2천여 명 남았지만
피해자지원법 반쪽짜리 불과
“후손도 포함되도록 개정을”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합천평화의집(원장 이남재)은 8월 5~6일 ‘비핵 · 평화로 가는 길’이란 주제로 ‘제7회 2018 합천비핵평화대회’를 원폭피해자 복지회관에서 진행했다. ‘2018 합천비핵평화대회’는 원폭에 희생당한 희생영령들의 넋을 기리고 피폭자 1 · 2세의 고통스런 삶과 아픔을 공유하며 비핵 · 평화의 간절한 소망을 알리기 위해 개최됐다.



8월 6일 합천 원폭피해자복지회관 위령각에서 열린 제37주기 원폭희생 영령 추모제. 위드아시아 이사장 지원 스님이 헌화하며 희생 영령을 추모하고 있다.

대회는 이토 타카시 감독이 직접 북한을 방문해 최초로 원폭피해자들의 삶과 애환을 담은 다큐영화 ‘히로시마 · 평양’이 상영됐으며, ‘비핵 · 평화이야기 한마당’에서는 이원영 수원대 교수가 세계 각 나라를 다니며 느낀 탈핵에 대한 순례 경험을 이야기했다.

이남재 합천평화의집 원장은 “비핵화 평화대회는 두 번 다시 지구상에 핵무기가 없는 세상을 구현하고, 그 뜻을 전 세계에 알리고자 매년 개최하고 있다”며 “남과 북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선언하며 비핵 평화의 첫발을 내디뎠다. 작은 도시 합천에서 울리는 평화의 외침이 지구촌 곳곳에 퍼져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원자폭탄이 떨어진 당시 히로시마에서 8만 명, 나가사키에서 20만 명이 숨졌다. 그 가운데 한국인 사망자는 나가사키에 3만5000여 명, 히로시마에 1만5000여 명으로 전체 희생자의 20%를 차지한다.

일제강점기 많은 한국인이 징용됐으며, 그중 원폭 피해자의 70%가 합천 출신이다. 국내 원폭피해 생존자 2000여 명 중 600여 명이 합천에 거주하고 있어 합천은 ‘한국의 히로시마’로 불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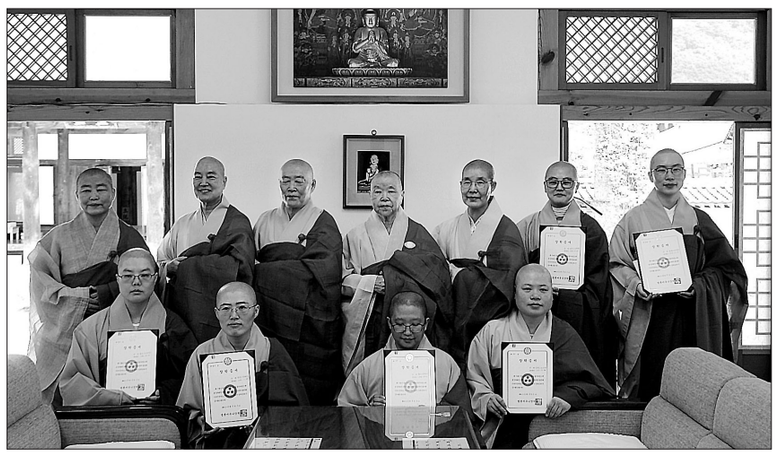
‘보시행’이 이끄는 불교인재 양성

법륜비구니장학회 제 9회 장학금 수여

비구니 인재불사를 위해 청도 운문사 회주 명성 스님이 설립한 법륜비구니장학회가 9년째 장학금을 전달하며 스님들의 원활한 학업을 지원했다.

법륜비구니장학회(이사장 명성)는 9월 3일 청도 운문사에서 ‘제 9회 법륜비구니장학회 장학금 수여식’을 봉행, 현재 학업에 매진하고 있는 6명의 스님들에게 각각 500만원씩 총 3000만원의 장학금을 수여했다.

이날 장학금은 효은 스님(영국 브리스톨대학 종교학과), 동건 스님(동국대 불교대학원 불교학과), 능현 스님(동국대 교육대학원 유아교육과), 경한 스님(동국대 일반대학원 미술사학과), 여친 스님(동국대 일반대학원 불교학과), 성제 스님(동국대 일반대학원 불교학과)등에게 전달됐다.



법륜비구니장학회 이사장 명성 스님(뒷줄 가운데)과 이사스님들, 장학생스님들이 함께 기념촬영하는 모습.

수여식에는 법륜비구니장학회 이사장 명성 스님(운문사 회주), 상임이사 진성 스님(내원사 주지), 운문사 승가대학장 일진 스님, 운문사 주지 진광 스님, 감사 운산 스님(운문사 승가대학 학감) 등 20여 명의 이사 스님들이 참석했다.

법륜비구니장학회 이사장 명성 스님은 “장학금 대상자들은 한국불교 발전의 초석으로서 보살도 정신으로 불교의 희망과 빛이 돼주길 바란다. 특히 앞으로 보시하는 데 마음을 쓰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능현 스님은 장학생을 대표해 “운문사 회주 명성 어른스님의 정성을 잊지 않고 열심히 공부와 수행에 매진하겠다. 훗날 불교 어린이 교육불사를 위해 회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경한 스님은 “어른스님들의 격려와 가르침으로 학업에 정진하며, 부처님 가르침에 따라 수행할 수 있어 큰 힘이 된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한편 법륜비구니장학회는 비구니 및 불자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 불교발전과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설립됐다. 2009년 운문사 회주 명성 스님이 장학금 마련을 위한 서예작품전시회를 개최해 모연한 수익금 5억 원이 초석이 됐다.

현재 9억여 원 상당의 장학기금이 조성됐으며, 올해 9회까지 44명에게 2억200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했다. 또한 명성 스님은 법륜비구니장학회 외에도 학업이 우수한 사부대중을 격려하는 법계장학금(2003년 시작)과 불교문학 발전을 위한 법계문학상(2016년 제정)을 통해 인재양성에도 힘을 쏟고 있다.

청도 운문사=손문철 대구지사장

영혼의 세계 (빙의)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영가의 생각을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몸에 들어온 이유를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영가의 병이 사람에게 옮겨온 경우)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빛은 영가가 천상으로 가는 길이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조상영가, 전생영가로 인해 잡귀가 들어온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 않고 살이 찌시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근육이 풀어지며 통증으로 고통 받는 분, 몸이 굳어지며 감각이 없는 분**, 병원 등을 수십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 풍수에 관한 모든 것 상담 가능 ◀

천 광 수 련 원 ☎ 043) 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

하기책자 5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命

(명)
글쓴이 : 혜천법사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20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전생의 빚을 소멸시켜 자신의 운명을 바뀌게 하는”

생전예수재기도의 중요성과 그 성취효과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생전예수재는 “왜” 필히 지내야만 하는가?
② 생전예수재 신청 및 집에서 기도하는 방법
③ 생전예수재 기도후 일어난 영험사례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오포로 345-4 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768-8413